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사무총장 우 인 식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이메일 : hanbyun@hanbyun.or.kr 홈페이지: www.hanbyun.org

한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공로상 시상 및 세미나 개최

일 시 : 2018. 12. 10(월).10:00 - 12: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 최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국회인권포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

1.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는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공로상을 드리고, 또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시네폴슨 유엔 서울사무소장, 수잔숄티 디펜스포럼 대표 등도 참석한다.

2. 지금 한반도에서는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있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비핵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도 개선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달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도 14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아가 5년 연속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였다.

3.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 등이 결성되어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의 수령절대주의 3대 세습 하에 고모부와 이복형을 비롯하여 무수한 사람을 즉결 처형하거나 공개처형하고 또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있는 반인도범이다.

4. 이에 우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화요일 5회에 걸쳐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반대 및 김정은 고발 릴레이 기자회견 결과를 정리하고, 김정은의 구체적인 반인도 범죄행위를 밝혀서 세계최악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8. 12. 7.

한반도 인권 · 통일 변호사모임
회장 김 태 훈